



선교 편지 23-1 인도 첸나이에서 (2021-04-07)



할렐루야! 인도 첸나이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4월 초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사했습니다. 벌써 6번째 이사입니다. 힌두 사원과 모스크에서 나는 소리, 폭죽 터지는 소리, 개짖는 소리, 차들의 혼(클러션) 소리, 한 밤중에 불어대는 경비원들의 호루라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터라 가장 조용한 곳을 수소문해서 이사했습니다. 방 두 칸짜리 아파트로, 조용한 편이고 제가 사역하는 신학교와도 더 가까워져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도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희 부부도 1차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마쳤습니다. 부작용 사례도 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발열이나 몸살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4월 말에 2차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현지인 교회에서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 7~80여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했지만 마스크를 벗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기도해주세요.



건축 중에 코로나 발발로 예정보다 일 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었던 교회 건축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봉헌자와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된 교회 건축이 재개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신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대전의 한 교회에서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2년 동안 수업료, 기숙사비, 식비 일체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기도 응답이 있어 놀랍기만 합니다. 장학금을 주신 교회와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일상을 바꿔놓은 지 벌써 일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인도에서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4월 5일 하루에만 93,249명의 확진자와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인도인들은 마스크를 거의 끼지 않습니다. 날씨가 워낙 더워서 끼기도 어렵지만 사람들이 많이 방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코로나 확진자 폭증하고 있어서 타밀나두 주 정부는 4월 9일부터 30일까지 봉쇄령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식료품 가게외의 거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저희 신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도 계속해서 닫아야 합니다. 종교 모임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동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존재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3. 한국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4.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사역 가운데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윤서태, 류성혜 선교사울림

styun69@gmail.com / 현지전화번호: +91 73387 15458 / 카톡 아이디: styun501